# 담양 에코하이테크 6개월째 공사 중단

## 공사중 암반 나오자 他업체에 처리 의뢰

## 기존 시공사-담양군간 법적분쟁 휘말려

담양군이 추진중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시공사와 군간 법적 분쟁으로 6개월 째 중단되고 있다.

담양읍 삼만리에 33만㎡ 규모로 건설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 초 중단돼 이후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군은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지난해 9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1년간 공사를 진행한 뒤 업체들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완공예정일인 9월 28일을 넘기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이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연암(퇴적암)을 처리하는 작업을 A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 이곳 지질에는 1천600㎥의 연암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30만㎥의 연암이 새롭게 발견됐다. 이에따라 기존 공사비용 86억원에 46억원의 연암 처리비용이 추가로 들게 됐다.

그러나 한 골재업체가 발파 작업을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연암을 가져가는 조건을 제시했고 군은 이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

거액의 공사비 증액을 기대했던 A건설은 이에 반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분할계약이 금지된 공사'라며 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담양군은 예외조항으로 명시된 '분리시공이 효율적으로 인정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분리 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공사는 지연되겠지만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 장흥 유치 휴양림 아웃소싱 재정부담 줄고 서비스 향상

### 3차 위탁운영자 모집

장흥군이 휴양림 운영을 외부에 위탁해 재정부담도 줄이고 서비스도 향상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민간이 운영을 맡은 유치 휴양림〈사진〉은 지난해 1억7천7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1억3천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장흥군은 위탁 운영금으로 연간 4천만원을 받아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위탁으로 장흥군은 매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용객들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는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유치 휴양림을 운영할 위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공공 비축 벼 산물검사 '컨테이너 백' 방식 도입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이 지난 1일 장흥군 장흥읍 장흥물산(대표 손수익)에서 '공공비축 건조 벼 산물검사'를 실시하면서 '톤백(컨테이너 백) 방식'을 도입했다.

톤백 방식은 트랙터에서 800㎏ 들이 포장 단위로 트럭에 실을 수 있어 별도 40㎏ 단위로 소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문에 노동력 절감과 유통비용·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목포세관 영암 대불산단 이전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이 최근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로 신청사를 이전했다.

신청사는 부지 1만2천여㎡에 연건평 2천547㎡ 규모로 지상 3층 본관 동과 별관(1층),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 '쫄깃쫄깃' 벌교 참꼬막 축제

### 9일부터 사흘간 벌교읍·여자만 갯벌서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벌교 참꼬막 축제'가 9일부터 사흘간 보성군 벌교읍 벌교제일고교와 여자만 청정해역인 대포리 갯벌에서 열린다.

9일에는 벌교 제일고에서 읍민의 날 행사와 군민노래자랑,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등이 열리고, 10일에는 판소리 국악공연, 남미민속공연, 방송사 축하공연 등이 있게 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청소년 페스티벌과 마술공연, 소설 태백산맥 연극, 평화통일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또 꼬막 삶고 시식하기, 꼬막까기, 녹차시음 등이 축제기간 내내 이어지며 벌교가 주 무대였던 '소설 태백산맥'의 문학기행(중도방죽걷기 등) 행사도 준비돼 있다.

특히 대포리 갯벌에서는 꼬막잡기와 꼬막널배타기 등 다양한 갯벌 체험행사도 열린다.

벌교 여자만 갯벌은 모래나 황토가 섞인 다른 지역 갯벌과는 달리 찰진 진흙이 유명하며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참꼬막은 헤모글로빈과 단백질, 무기질, 칼슘,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자만에서는 700여 어가가 연간 3천t의 꼬막을 생산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피아골 단풍제례** 지난 3일 개막한 '제 31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에서 우윤근 국회의원과 서기동 구례군수. 유림들이 자연에 감사하는 단풍제례를 올리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법인 설립안 의회서 또 다시 제동

나주시가 '주몽세트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 설립에 대해 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나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삼한지 테마파크(주몽 세트장)의 민간자본 유치, 경영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제3 섹터 방식의 법인설립 출자계획안'이 의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주식출자 계획안에 대해 행정절차 마무리, 심도있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도 테마파크 내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 안건을 거부했었다.

시는 올 초 용역을 통해 민·관 공동의 제3 섹터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나주 공산면 신곡리 영산강변에 자리 잡은 삼한지 테마파크는 13만 1천여㎡의 부지에 80억 원을 들여 100여 채의 궁궐과 민가 등이 설치됐으며 인기 드라마 주몽의 주 촬영지로 이용됐다.

또 최근에는 태왕사신기 등이 촬영됐으며 고구려 3대 왕인 태무신왕의 일대기를 다룬 '바람의 나라' 촬영도 추진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도서지역 운전면허 출장시험 확대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이 도서(島嶼) 주민들을 위해 운전면허 출장시험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안군 흑산도를 비롯한 16개 도서에서 실시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장시험이 목포와 여수 등 파출소가 있는 30개 도서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도서지역에서는 매년 두차례씩 면허시험이 실시된다.

여기에 ▲완도군 금일도 ▲신안군 비금도 ▲신안군 압해도 ▲신안군 흑산도 ▲신안군 하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출장 학과시험(1·2종)도 신안군 가거도와 지도 등 7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출장시험 확대로 그동안 면허를 따기 위해 목포 등 육지까지 나와야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해남 수렵장 500명 신청 사용료 수입만 1억원

지난 1일부터 개설된 해남군 수렵장에 500여 명의 엽사가 수렵을 신청, 1억원이 넘는 사용료 수입을 올렸다.

해남군은 금지구역과 수렵 가능한 조수가 수록된 책자를 제작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도립공원과 철새보호지구, 관광지, 도로변과 해안선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해남 지역에서는 지난 7년간 수렵이 금지돼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컸다.

해남 수렵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 市 무임승차에 '공든탑' 무너지나

기자 노트

요즘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구청에 미래도시 개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4급(본부장급) 한 자리가 늘어나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자체 승진이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미래도시 개발사업소 신설은 광산구가 오랫동안 행정자치부에 공(?)을 들인 끝에 어렵게 성사됐다.

광산구는 체육 및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직을 승진시켜 사업소장에 임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치구의 시설직 4급 승진인사는 광주시가 통합관리키로 시·구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광산구 공무원들은 광주시가 사업소 인사에 관여해 '공든 탑'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산구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승진인사가 아니라 신설되는 경우는 통합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시 반응은 신통치않다.

이 때문에 한달여가 되도록 사업소장 자리와 공석인 농업지원팀장 인사가 지연돼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승진 인사는 인사 적체를 해소시켜 자치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마련이다.

기원태 〈사회 2부 광산주재〉

자칫 '재주는 곰(광산구)이 넘고 돈(승진인사)은 X(광주광역시)가 챙긴다'는 냉소적 여론이 광산구 공직사회에 만연한다면 광역행정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4급 한자리를 욕심내다 더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광주시의 용단을 기대한다.

/wtkee@kwangju.co.kr